**막0306 Note**

**◆ 헤롯 왕가파(王家派) : 호크마 주석에서**

성 경: [막3:6]주제1: [확장되는 종의 사역과 고조되는 핍박]주제2: [안식일 치유와 고조되는 바리새인들의 음모]

헤롯당은 종교적 집단이기보다 해롯 가문에 정치적으로 봉사하는 정치적 당파였다.

즉 헤롯당은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 안디바를 중심으로 하여 헤롯 왕가의 부흥을 꾀한 집단으로서 사회. 종교적 기존 질서와 법률의 고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Grant, Taylor).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로마 제국의 지배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소위 민족적으로 비애국적 집단이었다.

이에 비해 철저한 애국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는 보수주의자들인 관계로, 헤롯당과는 평소에도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로서 양자간의 동맹(同盟)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놀라웁게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기존 질서를 와해시킬 위험성이 다분한 예수 제거에 있어서만은 생각이 일치함으로써 참으로 어색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 안디바 추종자들과의 제휴를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듯하다.